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2009년 12월)과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시아 모임(2010년 2월)을 앞두고, 우리는 고맙게도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사 몇 명은 중국을 방문해 3주를 보냈고, 그분들이 보여준 넘치는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모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중국교회와 56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를 그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꼈습니다.

북경의 가톨릭 대성당 입구에는 신자들이 하루종일 차를 정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연세 드신 여신자 한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신앙의 표현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가,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교회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둘러보러 오는 비신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를 가능하면 더 잘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항상 하늘(天)을, 초월을 믿어 왔습니다. 소중한 전통적 가치들, 특히 조화에 대한 추구, 연장자에 대한 공경 등이 지난 몇 십년 동안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래 다행히도 물질적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허를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종교에 귀의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아직 작고 흔히 부족한 자원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얼마나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들의 인내심과 깊은 신심에 존경을 표하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는 아주 소박한 자리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신앙인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대지진을 겪은 스완성의 이재민들을 도우려 찾아간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주민들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은 중국 밖의 신자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연대하고 있는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커다란 개신교회 한 곳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폐제에서는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금요일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의 역사가 빚어낸 각 교회 내부의 분열의 상처는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이제 이 분열을 넘어설 때가 왔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화해는 신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중요합니다. 공동기도를 통해 함께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일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수천년된 지혜의 유산과 복음의 만남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으며 복음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더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우정과 감사의 표시로서, 폐제 공동체는 2009년 OPERATION HOPE 를 통해 중국에서 성경 백만 권을 인쇄하였고, 중국 전역에 배급하였습니다.

폐제의 편지

KR

2010년 편지

중국에서 보내는 편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리한 갈망

대륙 사이에 장벽이 될 수도 있는 큰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¹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이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문화나 나이 그리고 각자의 역사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러한 갈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이러한 갈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표지입니다.² 우리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까? 너무 빨리 그것을 채워버리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³ 이러한 갈망은 늘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⁴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수록,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서에서 하느님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

¹ 우리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인류가족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창조와 환경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²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당신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 당신 그려 지켰사옵니다” (시편 63:1)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 (이사야 26:9)

³ 우리는 피상적인 방식으로 갈망을 채워버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직면해서 끝까지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과소비가 대표적입니다.

⁴ 4세기, 나지안스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찬미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언어로도 당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갈망, 모든 이의 신음이 당신을 열망합니다.” 같은 시대에 아우구스티노 (어거스틴) 성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느님은 갈망을 자라나게 하신다. 갈망을 통해 그분은 인간 영혼에 깊이를 주신다. 영혼에 깊이를 주시므로써 갈망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인에 대해 말하듯 당신 백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를 쫓아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주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⁵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이런 갈망은 예수님 안에서 살과 피를 가진 현실이 됩니다.⁶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원하셨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아무 죄없이 박해받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를 하느님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현존, 곧 성령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갈망을 선별하는 것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갈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들, 때론 상반된 것을 동시에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도 다 가질 수도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⁷

그렇습니다. 갈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무엇을 보류해야 하는지를 인내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열망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정하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의 울림을 듣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⁸

우리 안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깨우는 것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열망을,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일깨웁시다.

당장 효율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오늘의 사회 분위기에서 경탄과 경배의 정신을 지속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⁵ 호세아 2:16,21

⁶ 어느날 예수님은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요한 4:7)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분이 하느님의 선물을 주시려 목말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목마르다”(요한 19:28)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목마름이야말로 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느님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열망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⁷ 우리 삶의 불완전하고 예측불가능한 측면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사회에서는 흔히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결함이나 고통 그리고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임을 망각하면서 우리의 연합함을 숨기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⁸ “좋은 생각 주시는 하느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시편 16:7)

처럼 보이는 긴긴 침묵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무릎을 꿇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임의 의미로 양손을 벌리는 것. 조용히 침잠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에 대한 개방을 의미합니다.

경배와 명상의 행위는 지난 수세기 동안 아시아 문화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세속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기도를 새롭게 할 자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전례(예배)와 모임에서 내적인 면은 공동체적, 축제적 성격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한다고 해서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망을 지닐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창조의 혜택을 향유하고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⁹

자신의 갈망을 선별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재산을 자신을 위해 독차지하지 않게 됩니다.¹⁰ 4세기 경 성 암브로시오는 “당신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기를 배울 때 우리는 고립에서 해방됩니다. 물질적 안락은 흔히 자기 속으로 움추려들게 만들고 진정한 소통의 상실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¹¹

나눔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와 방안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부상조 네트워크 개발, 연대의 경제를 육성하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며 다른 문화나 생활상을 내부로부터 이해하기 위해 여행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마을, 도시, 교구간 자매결연 맺기,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상호협조의 고리를 만드는 것 등등...

⁹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과학연구, 예술활동, 정치나 노동조합 혹은 NGO 활동 등 모두가 하느님을 섬기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더 인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우정을 넓혀가는 것, 이 모두가 하느님 나라가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¹⁰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¹¹ 우리 공동체가 여러 대륙의 대도시에서 “범세계적 신뢰의 순례”의 일환으로서 젊은이 모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수천 가정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에 맞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흔히는 서로의 말도 못하는데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 아주 적은 것만으로도 사람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쁜 뉴스만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젖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¹² 타인에 대한 존중은 평화를 예비하는 값진 보화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국경은 더 열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더 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¹³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분석과 호소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를 넘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동기 부여가 부족할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소박함으로 초대합니다. 단순소박함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

많은 사회에서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갈망은 새로이 깨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좀더 잘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하고 단순한 언어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힘든 시련을 너무 많이 겪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불가능하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¹⁴ 하나님께서는 이해불가능한 사건들 앞에서 생기는 회의와 반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분명히 말해 줄 수 있

¹² 의심과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1세기의 초기 동안 국제적 의식이 더 심화되고 민족들 사이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었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나 당면한 도전 (기후, 환경, 보건, 경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¹³ 아직도 5세 미만의 아이들 9백만 명이 매년 죽어가고, 개발도상국 아동의 29%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1989년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헌장 덕분에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국제적인 협조와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아사망률과 영양실조가 30 퍼센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¹⁴ 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에서 제가 가끔 만나는 한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불치의 병을 가진 그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꽃피울 가능성은 벌써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젊은이의 눈빛과 태도는 놀라우리만치 열려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신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뢰의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온통 병에만 신경을 쓰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비록 작지만 아주 분명히 부활의 신비가 비쳐집니다.

我的心灵渴望慕上主

겠습니까?²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며 시련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친히 나누셨습니다.¹⁶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어린이 하나 혹은 몇몇을 신앙의 길에 동반할 수 있겠습니까?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깊은 생각한 다음의 결심이 아니라, 신앙을 우선순위의 저 끝으로 밀어내 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지역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친구들은 서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 분야의 지식과 다른 분야에서 얻은 지식 사이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갖게 되는 여러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각 단계에서 신앙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갈 때¹⁷,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큰 포부와 동시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십니다.

나이든 이들은 더 젊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못지 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도록 맡기고, 용감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도록 맡깁시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갈망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 갈망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거둢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¹⁸

f. Abis (알로이스 수사)

¹⁵ 성경은 물론 모든 종교의 경전을 통틀어서, 용기처럼 의인의 고통에 대한 반감을 극렬히 드러내고 있는 책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용은 고통스러운 삶의 부조리함(불가해성)을 단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세상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용은 것처럼 반발하면서도 하느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모두 찾지는 못했지만,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를 얻습니다.

¹⁶ 마르코(마가) 15:34

¹⁷ 성경 공부 그룹, 짧은 매일 성경 구절, 침묵 피정, 본당이나 개교회의 신앙 심화 프로그램, 신학대학이나 기타 교회기관의 강좌, 인터넷 강의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¹⁸ 요한복서 22:17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유럽은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점점 더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동유럽의 거대한 변화 직전에,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유럽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 헝가리의 페치에서 열린 “동서 (East-West) 모임” 동안 유럽을 가르던 “철의 장막”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걷혔습니다.

-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을 준비하던 중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처음으로 유럽 전 지역에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모여올 수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모임에서 로제 수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많은 민족들이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치욕의 장벽도 허물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의 자유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2009년 5월에는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10월에는 헝가리의 페치에서 그리고 12월말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유럽 모임에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에 즈음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도, 우리는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각자는 “나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숙고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공동기도를 통해 양육되는 것

중국에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인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¹ 어떤 이들은 성경을 더 읽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서의 중심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모든 것들은 첫 사랑의 새로움 속에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장애물이 발생하고 배신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지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²

성서를 읽을 때 때로 우리는 한 마디밖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때때로 노래를 중국말로 부르는데 익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 기도를 더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오랜 기도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각 지역 교회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 단순소박한 것을 이용해서 기도의 장소를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 주님께 대한 경배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 노래(찬양), 시편, 성경봉독, 노래, 침묵 (8분-10분), 보편지향(중보)기도, 주님의 기도, 마침기도, 노래 등으로 기도의 흐름이 물흐르듯 이어지도록 합니다.
- 기도 중에는 짧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좀더 난해한 구절은 공동기도 이외에 성서공부 시간 등에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서나 전통적 기도문에서 따온 한 문장을 반복해서 노래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스며들게 합니다. 짧은 가사는 외우기 쉽기에 밤낮으로 우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단순소박한 상징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에는 십자가 이콘을 바닥에 모십니다. 누구나 다가와서 거기에 이마를 대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짐과 세상의 고통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각자가 들고 있는 작은 초에 어린이들이 불을 붙여 줌으로써 모두에게 부활의 빛을 전하는 동안 부활 복음을 봉독합니다.

¹ 세계 곳곳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고,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내면 깊이 스며드는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940년 라트비아에서는 빅토르라는 이름의 사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라트비아 정권의 요원들은 성경을 땅에 내팽겨치고 그 성직자에게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성서에 입맞추었고, 그 때문에 10년 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에서 고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² 성경에 대해서 필리핀의 한 주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귀 기울여 들어 주신다. 과부, 고아, 박해받는 자들 그리고 목소리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신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느님처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2010년 범세계적 신뢰의 순례의 일환으로

- 알로이스 수사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 2월 13-16일 포르투갈의 포르토
- 9월 3-5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
- 9월 17-19일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와 트론트하임을 찾아갑니다.

국제 젊은이 모임 일정

- 제5회 아시아 모임이 2010년 2월 3-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 제2회 중남미 모임(2010년 12월 8-12일)이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 제33회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 (2010년 12월 28일-2011년 1월 1일)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열립니다.